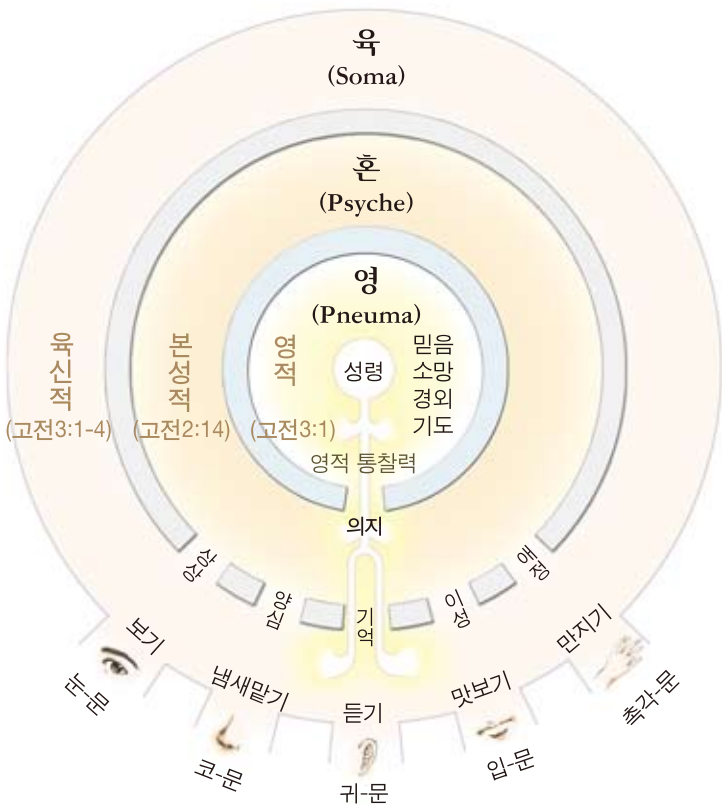


# 사람의 세 가지 본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 4:12)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이다.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들일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며(창3:6; 수7:21; 사 14:2; 삼하11:2; 요일2:16) 하나님은 주로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신다(롬10:17).